

음식의 은혜

- 천리교의 교조님께서 「뜻있사귀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신님의 수호에 의해 부여된 것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 교조님께서 생선을 먹을 때는 「맛있다, 맛있다 해 다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하나의 귀중한 생명을 우리들 인간을 위해 바치고 있는 생선이나 동물들. 그것을 맛없다 등 불평을 늘어 놓는 것은 모처럼 부여 받은 생명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신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도 됩니다.

음식의 은혜

천리교의 교조님께서 「뜻있사귀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도록」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신님의 수호에 의해 부여된 것을 결코 헛되이 하지 말고, 감사하게 받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교조님께서 생선을 먹을 때는 「맛있다, 맛있다 해 다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 하나의 귀중한 생명을 우리들 인간을 위해 바치고 있는 생선이나 동물들. 그것을 맛없다 등 불평을 늘어 놓는 것은 모처럼 부여 받은 생명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신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도 됩니다.

천리교에는 형태상으로는 계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키다는 자세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용솨음치며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금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신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부여해 주시는 음식을 통하여 아버지신님의 수호를 매일매일 맛보는 것. 이것이 천리교를 신앙하는 사람의 큰 기쁨의 하나입니다.



천리교에는 형태상으로는 계율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지키다는 자세보다도,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용솨음치며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에 대해서도 금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신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이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부여해 주시는 음식을 통하여 아버지신님의 수호를 매일매일 맛보는 것. 이것이 천리교를 신앙하는 사람의 큰 기쁨의 하나입니다.

